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글로스터에 위치한 파인 다이닝 스시 레스토랑 스시 상리의 오너이자 셰프인 이상현씨.오마카세 전문인 이 레스토랑은 구글의 평점 4.9를 받고 있으며 미쉐린의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사진=스시 상리 웹사이트)

미쉐린 후보로 거론되는 스시 상리가 빛나는 '최고의 스시 한점과 인생'

글로스터의 숨겨진 오마카세 식당, Sushi Sang Lee - 이상현 셰프 작은 해안 도시에서 정제된 파인 다이닝 스시 맛에 모두 놀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10년 동안 불안정한 미국생활에 지쳐 한국으로 귀국을 결심한 이상현씨는 친구의 소개로 글로스터에서 잠시 일하게 됐다. 보스톤에서 50여 마일 떨어진 바닷가 타운, 글로스터는 그

의 삶의 궤적을 송두리째 바꿨다. 글로스터의 숨은 진주, 스시 상리는 이렇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한때 와인스토어였던 오래된 건물을 개조해 예약을 받은 손

님들만 위한 코스 요리를 선보이는 스시 레스토랑이다.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새로이 보스톤에 진출한 미쉐린의 후보로 꼽히는 곳이다. 뉴욕도, 도쿄도 아닌 작은 해안 도시에서 이토록 정제된 파인 다이닝 오마카세(Omakase) 스시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란다. 이상현 셰프는 에도마에 스타일의 전통 기술과 글로스터의 로컬 생 >>14면으로 계속

정기 휴간 안내

7월 4일자 정기 휴간합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유학생 입국 불가시 대비 비상 계획 발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유학생 입국 금지 조치 법적 대응 패소 고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 케네디스쿨이 하버드 국제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 입국 금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에도 학위를 마칠 수 있도록 온라인 또는 캐나다 캠퍼스를 통한 대안을 제공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비상계획은 하버드 내에서 처음으로 공식 발표됐다. 현재 하버드의 여러 단과대학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입국 금지 조치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케네디스쿨의 신입 및 재학생 국제 유 >>10면으로 계속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애널리스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주저하지 마세요!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마이클리 모기지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내 집 마련·투자·재융자,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
저금리 융자·재융자, 내 집 마련과 투자까지! 믿을 수 있는 모기지 해결사!
모기지 제일 잘 하는 마이크!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NMLS 1464242
978.314.8818 mtgwithmike@gmail.com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GMCC, NMLS 254895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7년만에 확장 이전한 보스턴 총영사관, "동포사회 문턱 낮추기 일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튼에 위치한 주보스턴총영사관이 같은 건물 내 2층에서 8층으로 확장 이전했다. 총영사관이 이전한 것은 한국의 외환위기가었던 1998년 보스톤 다운타운의 파이낸셜센터에서 뉴튼의 현재의 공관 건물로 옮긴 것에 이어 27년만이다.

뉴튼 원계이트웨이센터 건물 8층에 새롭게 마련된 총영사관은 민원실과 집무실 겸 행사공간으로 분리돼 있다. 민원실은 총영사관 문에 들어서면서 왼쪽에 위치하며, 오른쪽

〈전체 기사 읽기〉
은 넓은 행사 공간과 회의실, 접견실, 집무실 등이 들어섰다.

총영사관은 이번 확장된 공간을 이용해 8.15광복절 등 국경일 행사를 개최하고 일부 한인단체의회의 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새로 마련된 8층 총영사관은 기존 2층에 비해 1.4배 정도 넓어져 행사공간은 약 80-100여명을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식 등을 나눌 수 있는 부엌도 마련되어 있다.

민원실 공간도 과거 2층의 민원실

에 비해 확대됐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도 새롭게 조성됐다.

김재휘 총영사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총영사관이 문턱도 낮추고, 우리 보스턴 동포사회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공관을 준비해왔다"고 말하고 "이 공간은 한국 학교에서 매년 하는 사생대회, 독도그리기대회 등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으로 벽을 장식하고, 동포사회의 한인 예술가들의 작품도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영사관 측은 8월 8.15 광복절 행사를 총영사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또한 과학자 모임 등도 공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총영사관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역이며 국가의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과 보안 등을 함께 고려해 일부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곽정열 부총영사는 "전 세계에 약 200여 공관이 여러가지 이유로 공관의 매입 이전 등을 요청하기에 공관 이전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 보스턴 총영사관의 합리적인 이전 사유

와 김재휘 총영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영사는 부임 직후부터 공관 매입과 이전 등을 두고 고민해왔으며 일부 동포단체 지도자들의 의견도 수렴해왔다.

총영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확장 이전으로 대부분의 공간이 넓어졌으나 총영사 집무실을 비롯해 영사집무실 등의 공간은 오히려 축소됐다.

bostonkorean@hotmail.com



총영사관 민원실 입구



총영사관 모임 공간



총영사관 회의실



총영사관 부엌

서울설렁탕
Seoul Seolleong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kyu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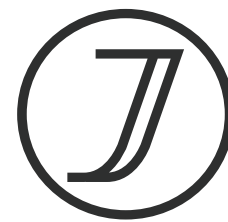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민주평통, 폭염 속 칸캐년 우번시장과 참전용사 묘비 국기 달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회장 한문수)가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국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행사를 6월 23일 우번 (Wobum)시 소재 우드브룩 묘지(Woodbrook Cemetery)에서 개최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의 태극기 달기 행사에도 우번시 시장 마이클 P. 칸캐년 (Michael P. Concannon) 과 베테랑 담당 디렉터인 밥 데이비스 (Bob Davis)와 다수의 우번시 관계자들도 참석하였다.

특히 폭염이 예보된 월요일 오전에 진행된 행사였는데도 보스톤 평통 자문위원, 보스톤 한미 노인회(회

장 한순용), 상록회, 보스톤 지역 한인들과 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한문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전에 참전해 희생한 참전용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국기달기 행사에 참석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특히 한미 노인회 분들께 감사한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 한 회장은 칸캐년 우번시장과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특히 “오은희 간사가 무더위 속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세심하게 잘 준비해 주어서 행사가 부드럽게 잘 진행되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칸캐년 우번시 시장은 축사에서 “이렇게 더운날인데도 많은 분들이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전체 기사 읽기〉

마음으로 국기달기를 위해 참석해 주어 고맙다. 나의 아버지 제임스 칸캐년도 한국전 참전용사이며 이곳에 잠들어 있어서 더욱 감사하며 의미가 크다. 이처럼 좋은 행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되길 희망한다.” 라고 인사말을 했다.

올해 행사 준비위원장 한순용 고문은 “한미 노인회에 큰 관심을 가져주는 민주평통에 감사하다. 노인회에서는 앞으로도 열심히 평통 및 한인사회 행사에 참석하겠다.” 며 인사말을 했다. 강희정 할머니의 손녀 하유니 양은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곧 간호사가 될 예정이며 할머니를 따라와 보았는데 이렇게 의미 있고 좋은 행사인줄 몰랐다. 앞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평통에서 준비한 태극기를 한국전 참전 용사 묘비에 꽂았으며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는 우번시 신문에서도 취재를 나왔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시켜 나아가 민주평통이 한미간 우방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bostonkorean@hotmail.com



연세대, 2025 정기 연고전 골프 대회서 짜릿한 승리 주니어 힐에서 펼쳐진 자존심 대결... 연세대, 간발의 차로 작년 패배 설욕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25 정기 연고전 골프 대회에서 연세대가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거두고 작년 패배를 설욕했다.

6월 21일 토요일 뉴잉글랜드 주 니퍼 힐 골프 코스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동문들이 각각 14명씩, 총 28명이 7개 팀으로 나뉘어 열띤 대결을 벌였다. 정기 연고전 골프 대회는 양교의 전통과 자부심, 그리고 동문 간 교류가 어우러진 특별한 행사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경기 내내 연세대와 고려대는 막상막하로 접전을 벌였으며, 마지막 홀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 넘치는 승부가 이어졌다. 결국 간발의 차이로 연세대가 짜릿한 승리를 거두었다.

연세대 참가자는 “이번 대회는 승부를 넘어서 서로를 존중하며 즐긴 진정한 스포츠맨십의 자리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가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이 정말 값

〈전체 기사 읽기〉

졌다” 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 후에는 양교 참가자 전원 이 함께 식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목을 다졌다. 특히 두 학교 동문들은 이날을 계기로 앞으로도 뉴잉글랜드 지역 내에서의 교류와 친교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하며, 연고전이 단순한 경쟁을 넘어 지속적인 협력과 우정의 장이 되길 희망했다.

백현일 연세대 동문은 그리고 이날, 모두의 마음속에 남은 따뜻한 한마디를 새겼다고 전했다. “고려대가 있기에 연세대가 더욱 빛나고, 연세대가 있기에 고려대도 더욱 특별하다.”

행사 관련 문의:
연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문화: newenglandyonsei@gmail.com
고려대학교 뉴잉글랜드 동문화: sunghugh.choi@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Pine Dental



Fitchburg, MA에서
여러분의 치아를
책임지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삶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394 water St.
Fitchburg, MA 01420

Phone: 978.345.7400
Pinedentalpc@gmail.com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JUNE 27th - JULY 3rd,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FRESH UDON SALAD

It's cold, it's bold, and it's everything your summer appetite's been waiting for. Grab all the fresh ingredients at H Mart and make it your next go-to summer dish. 여름 입맛에 딱 맞는 우동 샐러드. H마트에서 신선한 재료를 챙겨 여름 별미로 즐겨보세요!



Yu Choy Tip 하루나 팁 LB \$1.99	Lychee 리치 LB \$3.49	Shanghai Choy 청경채 LB \$0.99	DRISCOLL'S Strawberry 드리스콜 딸기 2 LB/PKG \$6.99 FRI/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JUMBO EA \$4.99	Honey Mango 허니 망고 BOX \$10.99	White Peach 백도 LB \$2.99
Dragon Fruit White Flesh 용과 LB \$1.99	ZESPRI SunGold Kiwi 제스프리 썬골드 키위 BOX \$26.99	Blueberry 블루베리 18 OZ/PKG \$3.99	Persian Cucumber 페르시아인 오이 16 OZ/PKG \$0.99	Washington Red Cherry 체리 LB \$3.99	Green Onion 파 BUN FOR \$1.99	Honeydew 허니듀 EA \$3.9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10.99	Fresh Boneless Pork Loin for Cutlet 생 돈까스 LB \$6.99
Fresh Sliced Pork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LB \$7.99	Fresh Chicken Wing 생 닭 날개 FAMILY PACK/LB \$3.99
Marinat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8.99	Frozen Old School Soondae Korean Style Links 아얌육 토종순대 1.5 LB/PKG \$9.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esh Dabs 가자미 LB \$2.99	Fresh Uni 성게알 1.05 OZ/PKG \$8.99
Frozen Branzino 브란지노 500-600'S/LB \$5.99	Frozen Skate Wing 홍어 LB \$3.99
Frozen Silver Pomfret 은병어 300-400'S/LB \$8.99	Frozen Cleaned Cuttlefish 껍질 벗긴 갑오징어 LB \$4.99

SMART CARD MEMBER ONLY

NONGSHIM Champong Ramyun 농심 오징어짬뽕 4.37 OZ X 4 EA/PKG \$4.99	NONGSHIM Spicy Vegetable Noodle Soup 농심 무파마 탕면 4.3 OZ X 4 EA/PKG \$4.99
HAITAI Honey Butter Potato Chip 해태 허니버터칩 1.05 OZ X 12 EA/BOX \$8.99	HAITAI Homerun Ball Snack 해태 홈런볼 14.6 OZ (9 EA/BOX) \$8.99

OTOKI Jin Ramen 오뚜기 진라면 SPICY/MILD 4.23 OZ X 18 EA/BOX \$16.99	HYOSUNG Roasted Seaweed with Sesame Oil 효성 오리지널 도시락용 고소한 옥동자김 0.16 OZ X 12 EA/PKG \$3.99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10.99	DAESANG O'Food Galbi Marinade for Beef 대상 오푸드 소갈비 양념 29.6 OZ FOR 2\$9	GRAZA Drizzle Extra Virgin Olive Oil 그라자 드리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6.9 FL OZ \$15.99
PULMUONE Juicy Dumplings with Pork & Vegetables 풀무원 육즙듬뿍만두 21.2 OZ \$8.99	HAIO Pickled Radish Wrap Sweet & Sour 해오름 쌈무 새콤한 맛 12.34 OZ \$1.99	HAIO Canned Whelk 해오름 골뱅이 캔 14.1 OZ \$5.99	ORION O!Tube Cheddar Cheese Flavored Snack 오리온 오감자 4.06 OZ FOR 2\$5	ORION Peanut Crunch 오리온 땅콩 강정 5.89 OZ FOR 2\$5
ARIZONA FARM Natural Honey Wild Flower 아리조나팜 내추럴 허니 와일드 플라워 32 OZ \$6.99	HAITAI Crushed Pear Drink 해태 갈아만든 배 8.04 FL OZ X 12 CANS/BOX \$11.99	LG ELASTINE Salon De Color Vivid Hair Dye LG 엘라스틴 샬롱 드 컬러 비비드 염색 WARM CORAL/3.7 OZ EA \$4.99	DOBLE Antibacterial Cutting Board 도블레 칼집에 강한 향균 시트 도마 MINT/RED \$8.99	CHEF'S WARE Clear Food Container 셰프웨어 클리어 플러스 직사각 핸디 음식용기 LARGE EA \$7.99

Taste the tradition of **Bibigo Kimchi** at H Mart
 H Mart에서 비비고 김치를 맛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2025년 연례야유회 및 장학금 수여식/정기 총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최진민)는 연례야유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보스톤 서쪽에 위치한 뉴턴 어번데일 파크 (Auburndale Cove, Newton)에서 지난 6월 14일 토요일 가졌다.

정기 총회를 겸한 이날 야유회에는 1950년대 학번부터 2010년 이후 학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동문과 가족 및 장학생과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교가제창으로 시작된 정기 총회에 서는 참석 동문 및 내빈 소개, 동창회 업무 보고, 감사보고, 장학기금 현황 및 심사 결과 발표와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업무 보고 시간에는 특히 6월12일 이사회에서 검열/승인된 원탁수 동문의 차기 회장 인준과 개정 회칙의 인준을 만장 일치로 승인하였다.

장학 기금으로는 고 이재신 동문님 등의 10만불에 올해 유규호 장학기금(임재수교수/유규호 동문) 5만불이 추가되어 현재 15만불이 확보

<전체 기사 읽기>

되었으며, 장학위원회의 활발한 모금 활동으로 올해에도 후원금 \$24,000을 확보했다.

올해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9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장학생은 고등학생 2명(서예린-Lexington고교, 최정은-Winchester고교), 대학생 2명(리딩 루-Northeastern, 전예은-하버드), 대학원생 5명(박찬우-MIT 컴퓨터공학 박사과정, 최영지-NEC 박사과정, 심윤재-Yale 철학과, 노현진-NEC 박사과정 입학예정, 문

현진-MIT 박사과정)이다. 수상자들은 장학금 수상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으며 이번 수상이 자랑스럽고, 꿈과 목표를 향해 어려움을 헤쳐나 가도록 마음을 다잡는 힘이 되었다는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어진 점심 식사 시간에는 오락가락하는 비의 날씨속에 동문들은 오래간만에 반가운 만남의 담소를 나누며, 야외 한식뷔페를 즐겼다.

점심식사후에는 단체사진 촬영과 그동안 동창회를 위해 수고한 이규

진 감사, 백문성 편집 간사, 정해원 관악회장에 대한 공로/감사장 증정 및 처음 나온 동문 및 특별 동문들에 대한 상품권 전달이 있었다. 끝으로 현 회장과 신임 회장 간의 인수인계 및 신임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서울대 동창회는 올 가을 가을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동창회문의: 21-22대 뉴잉글랜드 지부 회장 최진민 (jinchoi52@gmail.com)
취재: 백문성(문리대65)



24일, 보스톤 역대 6월 중 가장 더운날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6월 24일, 보스톤의 기온이 화씨 102도(섭씨 38.9도)까지 치솟으며, 역대 6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이는 1911년 7월 기록된 보스톤 사상 최고 기온(화씨 104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977년 7월 이후 가장 더운 날이자 보스톤 기상 관측 역사상 네 번째로 더운 날로 기록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이미 보스톤 전역의 기온이 화씨 90도(약 섭씨 32도)에 육박했고, 오후 5시 23분

<전체 기사 읽기>

경 로건 국제공항에서 측정된 공식 최고 기온은 화씨 102도였다. 여기에 습도까지 더해 체감 온도는 106도(약 41도)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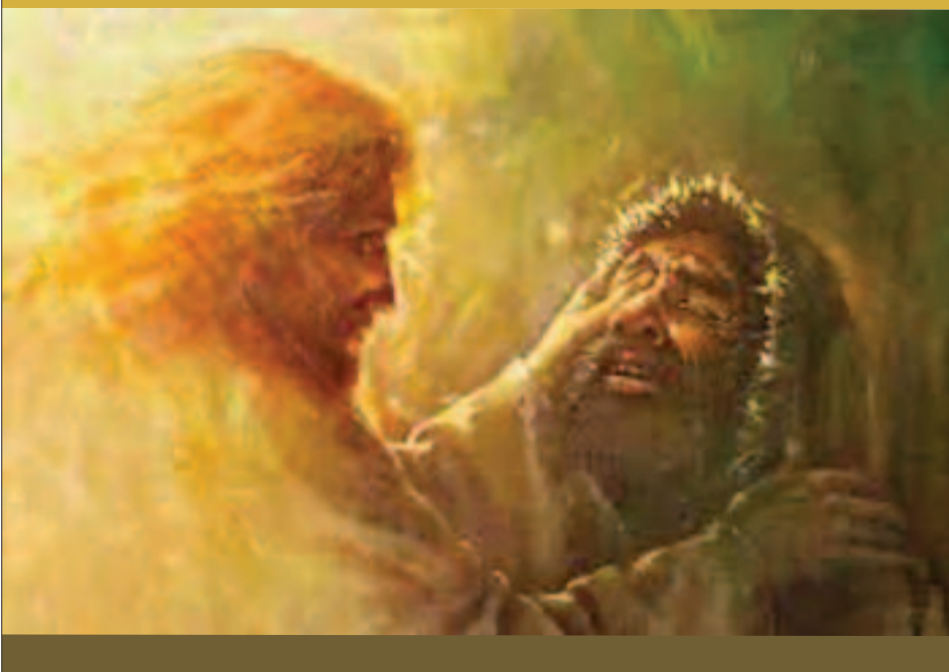
보스톤글로벌에 따르면, 뉴잉글랜드 전역도 극심한 더위에 시달렸다. 우스터, 밀턴,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뉴햄프셔 주 콩코드 등에서 모두 해당 날짜 기준 최고 기온 기록이 새로 작성됐다. 뉴욕시 역시 2012년 이후 가장 더운 날을 기록했다.

보스톤실로암교회

Siloam Church of Boston

주일예배 : 오후 1시(한글) / 2시 15분(영어)
기도 모임 및 신앙 상담: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보스톤실로암교회 (Siloam Church of Boston)
6 Eddy Street, Waltham, MA 02453
Cell: 857-540-1904
담임 목사: 예성혜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Helpline
800-327-5050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계봉

DIRECTOR
781.654.5281
j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lshou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송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rimson@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hin@bostonpremierrealty.com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폴리진
978.454.2043
lshoung@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파크
617.447.0551
nikipark@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유
617.780.7833
peter.yu@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헤
978.866.3248
jinahe@bostonpremierrealty.com



여현유
401.535.3387
yehyun.yu@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yu@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강수준
617.838.8973
kangsojun@bostonpremierrealty.com



파사 송
213.563.0997
parksun@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헤
413.507.1402
mikehe@bostonpremierrealty.com



선재해
617.913.3588
sunjaeh@bostonpremierrealty.com



최준원
617.877.9387
heonjun@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ayoung@bostonpremierrealty.com



곽숙
781.898.1214
kwaksuk@bostonpremierrealty.com



최준원
617.510.1182
heonjun@bostonpremierrealty.com



이근균
617.843.8723
aegun@bostonpremierrealty.com



최준원
604.611.0182
heonjun@bostonpremierrealty.com



Tommy Woolfolk
617.274.5610
tommywoolfolk@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982
nancywang@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2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Mian Yu
617.933.2713
mian.yu@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7.8978
xian.dole@bostonpremierrealty.com



Li Jang
248.418.0117
lijang@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638.9652
johntra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23.1038
rebeccaphu@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508.873.8076
michael.somma@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a
857.210.8830
linda.t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3.28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ilywang@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38.8285
crystalwei@bostonpremierrealty.com



반문희 박
291.448.8589
hwanmunhee@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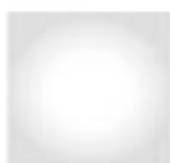
재이그 김
781.956.0409
reagr.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성진
857.280.0434
aivon@bostonpremierrealty.com



Nini Bolanger
413.237.1886
nini@bostonpremierrealty.com



Blank

매사추세츠 노조, 자율주행 웨이모 보스톤 진출 반대 시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의회가 자율주행차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H3634)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차의 보스톤 진출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매사추세츠 전역의 노조들은 24일 하원에서 자율주행 허용법안의 청문회가 열리는 보스톤 주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웨이모(Waymo) 등 자율주행차의 보스톤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우버 등 라이드헤일링 앱 기반 노동자뿐 아니라 트럭 기사, 경찰 노조까지 집회에 참여해 자율주행차의 안전 문제와 일자리 감소를 강하게 우려했다. 자율주행 차량이 미국사회에 정착하게 되기까지 이 같은 노조의 강력한 반발은 이미 예상되던 것이었다.

현재 주의회에서는 웨이모와 같은 무인 차량의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과, 이에 맞서 무인 차량에도 반드시 인간 운전자가 탑승해야 한다는 '대안 법안'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후자의 법안을 지지했다.

앱 기반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 일하는 운전자 체임 클롯(Cheim Klot)은 "예전에 금속 파편이 몸에 박혀 피를 흘리는 승객을 태운 적이 있다"며 "그때는 내가 병원에서 급히 데려갔지만, 웨이모 차

〈전체 기사 읽기〉

량이었다면 그냥 신호 대기 중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번 논란의 본질이 단순히 기술 발전이 아닌, 기업의 탐욕이라고 지적했다. 국제기계항공우주노조(IAM) 소속 마이크 바타비디언(Mike Vartabedian)은 "우리는 기술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혁신을 가장한 기업의 탐욕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노동계를 대표하는 그레이터 보스톤 노동위원회(GBLC) 달린 롬보스(Darlene Lombos) 위원장도 "이 기술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AI와 기술은 노동자를 보완하는데 쓰여야지 대체하는데 쓰여선 안 된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폭염 속에서도 트럭, 경찰 노조가 집회에 참여했으며, 민주당 스티븐 오웬스(워터타운) 주 하원 의원이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웨이모 측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도시의 좋은 이웃이 되고, 보스톤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자 노력한다"고 밝혔다.

웨이모는 202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처음으로 테스트했으며, 2024년부터는 일반 대중도 해당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웨이모는 자사 차량이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일한 사망 사고는 지난 1월 19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정차해 있는 웨이모 차량을 다른 차량이 들이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 사고는 과속으로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연쇄추돌의 시발점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반 차량의 탑승객 1명이 사망했다. 테슬라 차량의 운전자는 과속과 과실치사로 체포됐다.

웨이모는 현재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LA, 오스틴, 애틀란타에서 운행 중이며 워싱턴 DC와 마이애

미에서는 내년 운행을 시작한다. 이외에도 뉴욕과 도쿄에서 시험 운행 중에 있다. 현재 보스톤을 비롯한 내슈빌, 달라스, 라스베이거스, 샌에이토 등에서 서비스 확대를 위해 도로의 정밀지도도를 확보 중이다.

롬보스 위원장은 "웨이모가 보스톤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7만 개의 운전 관련 일자리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24일 주의회 인근에서 웨이모 측의 무인 차량 시범 주행이 예정 있었지만, 폭염으로 인해 취

소됐다. 해당 법안(H3634)을 발의한 다니엘 케일(린)과 니탈리 블레(선덜랜드) 주 하원의원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상원(S.2393)은 이미 자율주행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상태다.

이 법안은 상·하원이 조율한 법안으로 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운전자 동승 보완 입법, 일자리 보존 조치가 함께 논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hsb@bostonkorea.com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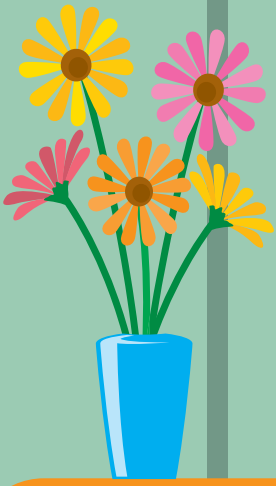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JUNE 26TH - JULY 10TH, 2025

samlip



Oven-Baked Financier

삼립 휘낭시에
 1.587 OZ X 10 EA/PKG

LIMIT 2 PKG

\$6.99



JUNE 26TH - JULY 3RD, 2025



LG Cleansing Foam
온:더바디 클렌징폼

~~REG. \$18.99~~

\$9.99

LIMIT 4 BOX
 SELECTED VARIETIES
 7 OZ X 2 EA/BOX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연방법원, 트럼프의 하버드 국제학생 입국 금지 조치 제동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법원이 2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령한 하버드 국제학생 입국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스 버로우즈 판사는 23일, 하버드대가 후원하는 F·J 비자 소지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의 6월 4일 포고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기존 임시 중단 명령이 만료되기 불과 4시간 전에 내려진 것으로, 하버드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학 측의 국제학생 유치가 계속될 수 있게 됐다.

법원 결정문에서 버로우즈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내세운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포고령은 사실상 하버드를 겨냥한 보복 조치라고 지적했다. 버로우즈 판사는 “이 포고령은 명백히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그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적대감 외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하버드대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거둔 두 번째 법적 승리다. 앞서 버로우즈 판사는 지난 20일, 연방정부가 하버드의 국제학생 유치 권한을 박탈한 조치에 대해서도 효력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적 공방은 지난 4월 초, 하버드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요구사항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행정부는 하버드 측에 국제학생들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하고, ‘관점의 다양성 (viewpoint diversity)’을 보장할 새로운 교원을 채용하며, 친팔레스타인 학생단체의 인정을 철회하는 등의 내부 개혁을 요구했다. 이에 하버드대가 거부 입장을 밝히자, 트럼프 행정부는 수 시간 만에 하버드에 대한 연방 지원금 20억 달러 이상을 삭감했다. 이후에도 연방기관의 추가적인 지원금 삭감과 국제학생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5월 22일 국토안보부(DHS)는 하버드의 국제학생 유치 권한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에 따라 하버드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포고령은 그러한 갈등 와중에 발표됐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소셜미디어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하버드를 ‘급진적 이념을 주입하는 곳’, ‘좌파 인사들의 집합소’라고 비난해왔다. 버로우즈 판사는 이 같은 발언들이 정부가 하버드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삼아 보복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번 사안은 평균 높은 학술기관을 통제하고, 정부의 시각과 다른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려는 잘못된 시도”라며 “국제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노엄 장관은 23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하버드의 국제학생 유치 프로그램 인증을 철회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버드가 연방정부의 자



〈전체 기사 읽기〉

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반유대주의 극단주의’를 조장하며, ‘적대국과 연계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버드대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하버드 대변인 제이슨 뉴턴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국제학생과 연구자들이 계속 하버드에 머물 수 있게 됐다”며 “하버드는 학생과 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 측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전체 학생의 약 25%를 차지하는 국제학생들이 입국 금지 조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비자 서류가 보류되거나, 보스톤 로건공항에서 장시간 억류된 뒤 돌려보내지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로우즈 판사는 이번 사건을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헌법적 권리를 지키는 문제”라고 규정하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말처럼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면 우리는 병어리와 칩묵 속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떼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sb@bostonkorea.com

하버드 케네디스쿨, 유학생 입국 불가시 대비 비상 계획 발표

▶▶1면에 이어서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재학생의 경우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의 먼크 글로벌정책대학원(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and Public Policy)에서 학위를 마칠 수 있는 선택권도 제공된다.

제레미 와인스타인 케네디스쿨 학장은 화요일 학교 커뮤니티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번 비상 계획은 많은 학생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덜기 위한 조치이며, 실제 시행 여부는 비자 또는 입국 제한으로 미국에 올 수 없는 학생들의 수요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연방법원이 지난 20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 국제학생 금지 조치를 예외적으로 차단한 뒤 나왔다. 앞서 앨리스 버로우즈 연방판사는 이달 초 해당 조치에 대한 임시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이후 하버드의 앨런 가버 총장은 가을 학기 정상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케네디스쿨에서 국제 유학생은 전체 학생의 약 52%를 차지하며, 매년 100개국 이상에서 학생들이 공공정책, 행정학 등 석사 학위를 위해 캠퍼스 캠퍼스를 찾는다.

신입 국제 유학생들은 ‘HKS Global’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게 되며, 미국 외 여러 도시에서 최대 3번의 대면 행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재학생의 경우, 토론토대학교 먼크스쿨에 비학위 특별학생 신분으로 등록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으며, 졸업 시에는 하버드 케네디스쿨 학위를 받

게 된다. 다만, 이 과정은 뉴잉글랜드 고등교육 인증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생들은 7월 중순까지 캐나다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먼크스쿨의 창립자인 재니스 스타인 교수는 “이러한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만약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국제 유학생들이 매사추세츠주 게임 브리지에서 학업을 마치지 못하게 된다면, 먼크스쿨은 하버드 학생들과 함께 공동의 학업 및 교류 기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하버드가 지난 4월, 정부가 요구한 입학 및 교수 채용 기준 개편, 반유대주의 문제 해결 등 일련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이후 본격화됐다. 행정부는 국제 유학생 인가 중단 조치 외에도 하버드의 비영리 세제 혜택 박탈, 약 30억 달러(한화 약 4조 원) 규모의 연방 자금 지원 중단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하버드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벌이고 있다.

하버드는 현재 학문적 자유와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트럼프 정부와 협상에 나선 상태다.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노엄 장관은 이번 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하버드가 국토안보부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반유대주의 극단주의를 조장했다”며 행정부가 하버드 학생들의 미국 내 학업을 계속 제한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버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버드 측 변호인단은 수정된 소장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버드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미국주택시장 상승세 주춤,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

케이스-윌러지수, 팬데믹 인기 지역은 하락세로 전환 보스톤은 3.9% 상승으로 한달 전보다는 소폭 둔화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미국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과열됐던 주요 지역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 하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P 코어로직 케이스-윌러 지수가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 미국 전국 주택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3월의 3.4% 상승률보다 낮아진 것으로,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연간 상승폭이다.

이 지수는 3개월 이동평균을 바탕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가 있다. 보다 실시간에 가까운 Parcel Labs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사실상 보합 상태다.

이번 케이스-윌러 지수에 따르면, 10대 및 20대 대도시 평균 주택가격 모두 최근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한 상태다. 특히 올 상반기 봄철 시장의 영향으로 일부 상승폭이 있었을 뿐, 전반적인 상승세는 크게 둔화됐다.

S&P 다우존스 인덱스의 니콜라스 고덱(Nicholas Godec) 고정수의 부문 대표는 “이번 시장 순환의 특징은 팬데믹 기간 동안 주목받았던 지역이 부진을 겪는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투기적 열기보다는 펀더멘털(기초 경제여건)에 기반한 성숙한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뉴욕이 7.9%의 연간 상승률을 기록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시카고(6%), 디트로이트(5.5%)가 뒤를 이었다. 보스톤은 3.9%로 전국 20대 도시 평균 3.4%에 비해 약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팬데믹 초기 남부 선벨트(Sun Belt) 지역의 폭발적 수요와 급등세는 완전히 수그러들었다. 과열됐던 플로리다 탬파와 텍사스 댈러스는 각각 2.2%, 0.2% 하락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사실상 가격 변동이 없었고, 피닉스와 마이애미는 각각 약 1%의 소폭 상승에 그쳤다.

이러한 가격 둔화의 주요 원인으

〈전체 기사 읽기〉
로는 고금리 영향이 지목된다. 4월 기준 미국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는 7%를 넘어섰다가 현재는 약간 하향 안정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월별 주택 구매비용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첫 주택 구매자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미부동산중개업협회(NAR)에 따르면, 5월 기준 첫 주택 구매자는 전체 거래의 30%에 그쳤다. 이는 통상적인 평균인 4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매물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는 부족하다. 부동산 웹사이트 레드핀(Redfin)에 따르면, 손실을 보고 집을 팔 위험에 처한 판매자는 전체의 6%로, 전년보다는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고덱 대표는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팬데믹 시기에 확보한 4% 미만의 초저금리 모기지를 포기하려 하지 않고, 신규 주택 공급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급 부족이 가격 하방을 견고히 지지하고 있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급격한 가격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튼 공립학교, 백신 접종안하면 올가을부터 등교 불허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뉴튼 공립학교가 올가을부터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를 강화한다. 뉴튼 교육청은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들의 등교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뉴튼 지역에서 발생한 수두(Chicken pox) 집단감염 사례를 계기로, 학생들의 백신 접종 현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안나 놀린 뉴튼 교육감은 지난주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메모에서 이같이 밝혔다.

놀린 교육감에 따르면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임 교육감이 학생들의 백신 접종 요건을 일부 면제했으며, 그 여파로 최소 182명의 학생이 현재까지도 필요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등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생 수의 약 1%에 해당한다.

이 중 42명 이상은 홍역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최근 텍사스 등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700건 이상의 홍역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2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가운데, 뉴튼 당국은 지역 내 감염 확산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뉴튼 공립학교는 주정부의 백신 접종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학교 보건실과 보건복지부를 통해 학생들에게 백신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 종교적 사유나 의료진

〈전체 기사 읽기〉
이 인정한 면역저하 학생의 경우 백신 접종 면제가 가능하다. 크리스 브레츠키 학교위원회(School Committee) 의장은 “우리는 주법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조치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보스턴을 방문한 관광객 1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홍역은 공기 중에 2시간가량 남아 있을 정도로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병이다. 뉴튼시는 홍역 감염자와 접촉한 미접종 학생에 대해 21일간의 격리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수업 결손에 대한 별도의 보충 조치는 없다.

미국소아과학회(AAP)에 따르면 홍역의 집단면역을 위해서는 최소 92~94%의 접종률이 필요하다. 현재 매사추세츠주의 평균 접종률은 약 95%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뉴튼에 거주하는 브렌다 앤더스 프링(53) 씨는 매사추세츠주 소아과학회 대표로 활동 중이다. 그는 “주 전반적으로 높은 백신 접종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주시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홍역은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한때 미국에서는 홍역이 거의 사라졌고, 25 ▶▶13면으로 계속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 MA, 15777

전기요금 매달 20달러 절감, 태양광 정책으로 가정 부담 낮춘다

힐리 주정부, 스마트 태양광 인센티브 개편과 요금 인하 병행 5년간 15억 달러 절감 효과 기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앞으로 매달 최대 20달러, 연간 240달러까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주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태양광 확대 정책은 모든 전기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향후 5년간 전체적으로 약 15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책은 태양광 에너지 생산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요금 체계에서 부과되던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하고, 주거용 태양광 설치 가구에는 안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태양광은 현재 매사추세츠가 가장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라며 “우리는 플로리다, 텍사스

<전체 기사 읽기>
스 못지않게 속도감 있게 전환해야 한다.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가정에 돌아가는 두 가지 혜택 이번 정책에서 주민들이 받게 될 혜택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은 일반 가정을 포함 모든 가정은 매달 약 15-20달러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태양광 보조금 제도인 ‘Solar Carve Out I·II’ 프로그램

이 단계적으로 종료되면서 불필요한 요금 항목이 청구서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가구당 연간 180-240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을 설치한 가정은 앞으로 매사추세츠 에너지청(DOER)이 운영하는 SMART 프로그램을 통해 고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넷 미터링(Net metering)을 통해 전력망에 공급할 경우,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는 구조로, 기존 변동형 보상과 달리 수익 예측이 가능하다. 특히 저소득 가정에는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개편된 SMART 프로그램

개편된 SMART(Solar Massachusetts Renewable Target) 프로그램은 단순한 보조금 제도를 넘어, 소비자 보호와 환경 보전을 함께 반영한 종합 인센티브 구조다.

새로운 스마트 프로그램은 주거용 가구에는 고정 보조금 단가 적용, 저소득 가정 대상 추가 인센티브 제공, 태양광 설치업체의 공정 계약 및 설치 품질 기준 강화, 대형 설비로부터 환경 기금을 조성해 보존 사업에 재투자, 매립지, 브라운필드, 주차장 캐노피 등 기존 개발지 우선 설치 등으

로 구성돼 있다.

또한 프로그램은 매년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조정될 수 있어, 에너지 비용, 설치비, 시장 수요 등에 따라 유연한 정책 운영이 가능하다.

매사추세츠, 태양광 확대

한때 미국 내 태양광 상위 설치 주로 꼽혔던 매사추세츠는 최근 몇 년간 설치량과 속도에서 타 주에 뒤처졌다. 2024년에는 전국 설치 순위 26위로 하락했고, 374MW 규모의 프로젝트가 인허가 및 계통 연계 지연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에너지 부담 완화, 독립, 혁신법을 상정해 인허가 기간 단축, 계통 접속 간소화, 보상 구조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SMART 프로그램 개편으로 지연된 프로젝트가 재개되면,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태양광 산업 고용도 회복될 전망이다.

레베카 텡퍼 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여름철 최대 수요 시기에 태양광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더 많은 태양광이 더 많은 절감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뉴튼 공립학교, 백신 접종안하면 올가을부터 등교 불허

▶▶12면에 이어서

년 넘게 홍역으로 인한 사망 사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들과 교사들도 교육청의 이번 조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뉴튼 노스 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데니스

크랩린 교사는 “항암 치료 중이거나 의료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개인의 백신 접종을 넘어, 공동체 내 더 취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

했다. 소아과 의사이자 4학년 자녀를 둔 조나단 브레너(59) 씨는 “팬데믹 기간 동안 백신 접종을 완화해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던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며 “백신

을 맞지 않은 집단이 생기면 전염병은 쉽게 확산된다. 백신 요건을 다시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않는 학생들의 등교를 제한하는 교육청의 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2학년 자녀를 둔 전업주부 제시 카워드(45) 씨도 “특히 홍역 같은 질병은 반드시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나 독감은 개인 선택의 영역이 있을 수 있지만, 홍역은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튼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톤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8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글로스터의 숨겨진 오마카세 식당, Sushi Sang Lee : 이상현 셰프

▶▶1면에 이어서

선을 결합해 어디에도 없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고의 한 점' 을 빚어낸다.

2001년 22살이던 그는 보스턴으로 가기 위해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 창밖으로 내다본 뉴욕 JFK 공항에선 연기가 피어오르고, 승무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당황하는 모습 속에서 그는 첫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다. 예상치 못한 비행기 결항, 캔슬된 연결편, 그러나 우연히 만난 하버드 학생과 그녀의 아버지를 통해 보스턴으로 함께 이동할 기회를 얻으며 그의 미국 생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 땅을 밟은 첫 시작부터 9/11 테러의 현장을 겪었고, 불안정한 신분 속에서 10년을 살아오는 동안 보스턴, 뉴욕, 글로스터의 유명 셰프 밑에서, 때로는 스시바가 있는 곳 어디서든 일했던 열정과 다양한 곳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4년째 오마카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1인당 \$200의 18코스의 오마카세를 선보이는 이곳은 구글평점 4.9를 기록 중이다.

그 여정의 시작은 보스턴 지역구인 올스턴에 위치한 한의원 '일선당' 에서 시작되었다. 어찌 보면 운명 같았다. 어렸을 적 제사 때 밤을 손질하던 솜씨에 가족들은 모두 칭찬 일색이었고, 어느정도 그가 칼질에 능숙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일선당에서 '가츠라무끼' (오이나 무를 게 돌려주는 전통기법)를 배우는 중에 재능을 본 일선당 '닥터 왕' 은 일본에서 스시를 배운 적이 있는 분이였다. 그를 통해 한의원 뒤쪽 주방과 침을 놓는 침대에서 스시 기술을 전수받으며 훈련을 받게 된다.

이후 첫 공식적인 스시바 경력은 케임브리지의 '코리아나' 에서 시작했다. 어머니의 찬모 인터뷰를 따라갔다가 자신도 무보수로 배우게 된 것이다. 점심시간에 하루 몇 시간씩 일본 셰프 밑에서 기술을 익히며 점점 자리를 넓혔다. 거기서 만난 한 한국 셰프와의 인연으로 뉴욕에서 일을 하게 됐다.

이후 다시 보스턴으로 돌아와 서드버리의 '오이시' 에 취직하면서 2년 만에 스시 기술 대부분을 마스터한 그는 헤드 셰프로 발탁됐다. 이후 메드필드에 Zebra's Bistro 스시바 헤드셰프로 이직해 1년 일했고, 진저 엑스체인지, 렉싱턴에 위치한 루이, 네틱의 다미 등 메사추세츠 지역의 주요 식당에서 경험을 쌓으며 커리어를 발전시켰다. 그 후 오시, 오가 스시 등 실력있는 셰프 밑에서 탄탄하게 경험을 쌓아갔다.

단순한 유학생의 미국 적응기가 아닌, 우연과 도전, 그리고 새로운 만남이 모인 진짜 이민자의 이야기다.

그의 24년간 미국에서의 삶은 힘들고 불안정했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으로 결국 새로운 길을 열었다. 요리에 대한 감각, 일에 대한 성실함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온 이상현 셰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6월 16일 월요일, 글로스터에 위치한 Sushi Sang Lee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Q: 셰프님은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2001년에 보스턴으로 이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 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동기가 있었는지?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고, 2001년에 22살의 나이로 미국 보스턴으로 이주했다. 원래는 요리를 하려고 온 건 아니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던 시기였다. 마침 친구가 보스턴에 있어서 공부를 위해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오게 됐다. 사실 그때는 요리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Q: 왜 스시로 시작하게 됐나?

처음에는 보스턴에 살고 싶어 생계와 신분을 위해 시작했다. 그런데 처음 배우면서 소질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일식당에서 일하면서 더욱 스시에 흥미를 갖게 됐으며, 특히 스시가 주는 그디테일과 절제된 미학에 매료됐다.

Q: 본인이 좋아하는 일본의 스시 스타일은?

에도마에 스타일을 가장 좋아하고, 또 요리의 중심에 두고 있다. 에도마에는 도쿄의 옛 지명인 '에도' 에서 유래된 스타일로, 도쿄만에서 잡히는 생선을 숙성시키거나 절이는 기법이 특징이다. 생선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없애는 데에 아주 잘 맞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특히 붉은 식초 (적초) 아카수를 사용한 밥은 깊은 풍미를 주며, 값이 나가지만 스시 상 리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그 전통성과 디테일에 대한 철학의 기반으로 모든 메뉴를 준비하고 있다.

Q: 뉴욕과 보스턴에서 다양한 셰프들과 함께 일했는데, 각각의 경험이 셰프님께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여러 셰프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장단점을 모두 배울 수 있었다. 보스턴에서는 기본기와 고객 응대 중심의 경험을 쌓았고, 뉴욕에서는 디테일과 정교함, 셰프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그 안에서 나는 전통과 창의성 모두 경험할 수 있었다. 그 경험은 지금 내가 오마카세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Q: 전통 에도마에 스시를 글로스터산 해산물과 결합한 'Gloucester/Edomae' 스타일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

글로스터는 바닷가 마을이다. 처음 이곳에서 팝업으로 스시를 시



작했을 때, '왜 굳이 멀리서 재료를 가져와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지역 해산물을 사용하면서도 전통적인 에도마에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했다. 에도마에 스시의 핵심은 단순히 신선한 생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초 숙성, 절일, 간장조림, 굵기 등 '숙성' 과 '균형' 에 있다. 나는 그런 전통적인 기술로 로컬 생선의 풍미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그렇게 해서 Gloucester/Edomae라는 나만의 스타일이 생기게 되었다.

Q: 일본 도쿄만과 글로스터 항의 해산물은 어떤 점에서 다르며, 요리할 때 어떤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나요?

도쿄만의 생선은 비교적 작고 섬세하다. 반면 글로스터는 대서양에 인접해 있어 생선이 크고 풍미가 강하다. 예를 들어 도쿄 스타일에는 하늘하늘한 도미나 고등어 같은 생선이 많다면, 글로스터에는 참치, 대구, 광어, 가리비처럼 굵직한 재료들이 많다. 그런 재료에 맞춰 에도마에의 전통 기술도 조정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지방이 많은 참치는 너무 오래 숙성하면 맛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숙성 시간을 줄이고 대신 적초로 밥의 산미를 높여 균형을 맞추고 있다. 지역성이 다르더라도 전통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료에 맞춰 유연하게 응용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한다.

Q: 뉴잉글랜드 해산물의 매력은 무엇인지? 특히 좋아하는 재료가 있는지?

뉴잉글랜드는 랍스터로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러 오지만, 사실 가장 유명한 건 로컬 참치이다. 글로스터는 '참치타운' 이라고 불릴 만큼 참치로 잘 알려진 지역이고, 참치 시즌이 되면 현지 어부들이 직접 잡은 참치가 식당에 들어온다.

그 참치는 일본에서 먹는 참치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가리비는 정말 훌륭하다. 글로스터산 가리비는 단맛이 강하고 탄력이 살아 있어서 날로 먹었을 때의 질감과 향이 깊다. 무엇보다 이 지역 해산물의 가장 큰 장점은 생산자와의 거리가 짧다는 점이다. 그만큼 신선도가 뛰어나고, 어부들과의 커넥션을 통해 재료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높아지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Q: 지역 어부들과의 협업이나 공급망에 있어서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면 공유해달라.

사용하는 재료 중 하나인 아귀간은 이 지역에서 나만 사용하는 시그니처 재료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부위라,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장 신선한 상태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재료지만, 지역 어부들과의 협업을 통해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그 덕분에 글로스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차별화된 메뉴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Q: 스시 상 리와 함께 하는 BEX는 어떤 비즈니스 인가요?

코로나 19팬데믹 당시,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았던 2021년 초 글로스터로 돌아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직접 스시를 만들어 이웃들에게 팔기 시작했다. 그는 동네 이탈리아 식당 '토노' 를 한 달간 통째로 빌려 오마카세 투고, 프라이빗 케이터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경험을 토대로 현재 BEX라는 세컨드 브랜드가 탄생했다. BEX는 벤토박스 스타일의 지라시 보울을 중심으로, 저렴한 가격에 고급스러운 경험을 전한다. 스시 상 리와 함께 운영하며, 팬데믹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확장된 나만의

또 다른 도전이기도 하다.

Q: 스시 상 리가 현재 미쉐린 가이드의 평가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지?

올해 말에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Q: 글로스터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도시가 셰프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10년동안의 불안정한 신분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던 찰나에, 와이프를 만나게 됐다. 친구의 소개로 함께 글로스터의 한 레스토랑에서 여름 시즌 스시바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물 위에 지어진 바와 무대, 라이브 음악, 바닷바람이 어우러진 글로스터 자체에 반했고, 지금의 아내도 그곳에서 만나게 됐다. 두 달간의 짧은 연애 끝에 집을 꾸는 대신, 그녀와 함께하게 됐다.

글로스터는 다양하고 신선한 해산물들을 직접 공수해올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 큰 도움을 주지만,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도시자체의 낭만과 아내를 처음 만난 특별한 장소이기에 더 의미있고 가장 좋아하는 도시다.

Q: 마지막으로, 셰프님의 요리를 처음 접하는 손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뉴잉글랜드의 생선으로 만든 뉴잉글랜드의 맛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다면,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특별한 오마카세 스타일로 즐기고 싶다면, 한 번쯤 스시 상 리에 방문해보셨으면 한다.

Sushi Sang Lee
76 Prospect St, Gloucester, MA 01930
sushisanglee.com
bostonkorean@hotmail.com



애가 말을 안들을 때, 부모의 말에 문제가 있을 확률 더 높아

전문가가 경고하는 5가지 '하면 독이 되는 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말투' 부터 바뀌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0여 명의 부모-자녀 관계를 연구해온 아동 심리 전문가 림 라우다는 최근 CNBC에 기고한 글을 통해, 아이의 반항을 키우는 잘못된 부모의 언어 습관과 그 대안을 제시했다.

라우다에 따르면, "하지 마라", "안 하면 벌준다" 등 전통적인 훈육 방식은 오히려 아이의 '싸움-도피 반응' 을 유발해 협력 대신 반항을 선택하게 만든다. 반면,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는 언어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협력하게 만든다.

다음은 라우다가 소개한, 아이의 말을 듣지 않게 만드는 5가지 나쁜 표현과 그 대안이다.

- 1. "내가 말했잖아" 대신**
대안: "네가 이 결정을 싫어하는 거 알아. 설명해줄게. 그런 다음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
이유: '내가 말했잖아' 는 대화를 차단하고 맹목적 복종만 강요한

다. 대신 부모가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면 아이는 존중받았다고 느끼며, 부모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

- 2. "말 안 들으면 게임도 없어" 대신**
대안: "네가 책을 읽을 준비가 되면, 책도 읽고 게임도 할 수 있어."
이유: 위협은 아이를 방어 모드로 몰아넣어 오히려 반항심을 키운다. 대신, 선택권을 주며 경계는 지키되 아이 스스로 준비가 됐을 때 행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3. "울지마, 괜찮아" 대신**
대안: "너 정말 속상해 보인다.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줘."
이유: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면, 감정을 숨기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진다. 반면, 감정을 인정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면 아이는 더 빨리 진정되고 부모를 신뢰하게 된다.

- 4.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었니?" 대신**
대안: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같이 생각해 보자."

〈전체 기사 읽기〉

이유: 아이가 일부러 말을 안 듣는다고 단정 짓지 말고, 실제로 헛갈리거나 어려움이 있는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5. "넌 그보다 더 잘 알잖아" 대신**
대안: "지금 네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같이 얘기해보자."

이유: "넌 그보다 더 잘 알잖아" 는 아이를 부끄럽게 만들고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대신, 아이를 믿고 돕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면 아이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아이를 바꾸는 게 아닌, 부모가 바뀌는 것
라우다는 "아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 협력과 신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 이라며, "감정적으로 안전하고 존중받았다고 느낄 때 아이들은 스스로를 잘 조절하고, 부모의 말을 잘 따르게 된다" 고 강조했다.

라우다는 현재 'FOUNDATIONS' 라는 부모를 위한 치유 저널을 운영하며,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한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hsb@bostonkorea.com



H마트, 본격적으로 베이커리·카페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전체 기사 읽기〉

= H마트의 구매 본부인 그랜드 BK(Grand BK)가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텐사우전드(Ten Thousand)' 와 카페형 베이커리 브랜드 라미(L'AMI)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시드니에서 시작된 글로벌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로, 미국, 대만, 베트남 등지에서 매장을 운영 중이며 필리핀과 일본 등지로도 꾸준히 확장 중이다.

바리스타와 큐그레이더(Q-Grader)가 엄선한 고품질 원두를 기반으로, 핸드드립 커피, 아인슈페너, 에스프레소 크림 라떼 등 시그니처 메뉴를 통해 젊은 소비자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랜드 BK는 2022년 미국 내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후 뉴욕 맨해튼 내 3개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2024년부터 가맹사업을 본격화해 뉴저지 저지시티, 텍사스 캐롤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신규매장을 준비 중이다.

또한 뉴욕, 워싱턴, 일리노이, 메릴랜드, 조지아 등 주요 주와 더불어, JFK 공항, 시애틀 SEA 공항 등 주요 공항 입점도 논의 중으로 향후 확장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L'AMI는 2016년 Grand BK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자체 론칭한 카페형 베이커리 브랜드로, 고품질 페이스트리와 케이크, 다양한 디저트 메뉴를 통해 꾸준히 고객들에게 사랑받아왔다.

현재 뉴욕, 버지니아, 하와이 등지에서 5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곧 뉴욕 그레이트넥(Great Neck) H마트내 신규매장도 오픈 예정이다.

L'AMI는 H Mart 매장내 인숍(In-Shop) 형태와 독립 로드숍(Stand-Alone) 형태 모두 가능한 구조로, 가맹점주들에게 유연한 매장 운영 옵션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프리미엄 디저트 라인업 강화와 함께, 한국 전통 베이커리의 정통성과 풍미를 더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 프랜차이즈 가맹 문의
Ten Thousand: franchise@10000coffeeusa.com
L'AMI: franchise@cafe-lami.com
- ▶ 웹사이트
www.10000coffeeusa.com
www.lamibakerycafe.com
bostonkorean@hotmail.com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CHOISIGNS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초이스 간판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홍콩 마카오까지 '햇불바람'이 불다.

지난 6월 9일-14일까지 일주일 일정으로 <300용사 부흥단(대표총재 정주갑 목사)> '홍콩 마카오' 햇불기도회 발대식이 있어 다녀왔다. 참석자는 6명으로 대표총재 정주갑(Paul Jung) 목사, 사무총장 신요한 목사, 회계 이학재 목사, 필리핀 총괄본부장 양승원 목사, 남해정 선교사, 신영 선교사가 동행하였다. 홍콩 공항에 도착해 마카오까지 1시간여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도착했다. 높은 습도의 무더운 열기가 시작되었다. <300용사 부흥단> '햇불기도회' 가 이곳 홍콩의 마카오까지 기도회가 열린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끝이 없구나 싶었다.

마카오에 도착하여 다음날 일정을 위하여 저녁 시간은 쉬를 가졌다. 이번 햇불기도회 발대식은 홍콩에 사는 필리핀 성도들을 위한 기도회였다. 필리핀에 150개 지부(필리핀 총괄본부장 양승원 목사)가 있는데 이곳 홍콩 마카오에서 12지부(지저스터 그레이트지부, GCF지부, 크리스찬 피스지부, 살롬지부, 그레이스 크리스찬지부, 피스 코비넌트지부, 산투아레이지부, 갓 리빙지부, 갓 워드 어스지부, 바이블센

터지부, 얼라이브지부, 인터내셔널 크리스찬지부) 발대식을 가졌으며, 또한 앞으로 필리핀에 150여 지부가 준비 중에 있다. 필리핀에만 300지부가 채워진 것이다.

11월 11일 11시에 '필리핀 2만명 집회' 를 놓고 <300용사 부흥단> 용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 한국 10도의 각 지부(서울 -> 제주도까지)와 사이판(지부장 장연자 목사), 일본(지부장 신현진 목사), 미국 LA본부(본부장님 백지영 목사 7개 지부), 미국 뉴욕 효성지부(지부장 김영환 목사), 미국 뉴욕 퀸즈침례지부(지부장 최웅석 목사)가 있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햇불기도회' 의 불이 타올 수 있을까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친히 이끌어가는 일임을 또 깨닫는 것이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삿 6:12)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라 하였느니라” (신 2:25)

<300용사 부흥단 표어>의 말씀이다.

이번 홍콩 마카오 발대식을 참여하며 각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지 그대로 느끼게 되었다. 세상 밖은 온통 사원들로 들어차 있고 집집마다 현관(대문) 문앞에 향불을 피워 머리가 아프다 못해 지끈지끈 견디기 힘든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것은 다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님을 '영적인 전쟁' 임을 직시할 수 있었다. 왜 우리가 이곳 '홍콩 마카오' 까지 햇불을 들고 와야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어디 그뿐일까. 온통 여기저기 번쩍거리는 현란한 불빛과 오가는 인파들 속 거대한 '카지노 거리' 를 만나며 혼돈의 '소동과 고모라' 를 연상하게 되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시간이었다. 답은 한 가지였다. 영혼구원을 위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용사로 보

내신 것임을 또 깨달았다. 이렇듯 귀히 쓰임받을 수 있음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시간이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진정한 예배' 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 혼탁한 마카오에서 현란한 잡신들이 아우성치는 이곳에서 '참 신이 바로 나(하나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는지 감사한 고백' 을 올리는 시간이 되었다.

<300용사 부흥단> '햇불기도회' 를 하나님이 쓰시며 이끌어가는 손길을 보면 참으로 감동과 감격의 시간이다. 정주갑 총재 목사를 비롯해 임원 목사들 그리고 단체 용사들 그 누구하나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모여진 단체이다. 때로는 정말 저 큰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다.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로 족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어여뵈 봐 주시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눈치 살피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도도새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차도남과 차도녀라 한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낱말이란다. 차가운 도시남자요 차가운 도시여자이다. 차도남녀는 도도함도 같이 갖췄을지도 모른다.

도도함. 잘난체 하며 주제넘게 거만하다. 한국어 사전에 나오는 풀이인데, 눈빛은 온화함 보다는 차갑고 매서울 수도 있겠다. 수더분과는 거리가 상당할 진저.

인터넷에 의지한다. 도도라는 이름을 가진 새가 있었다. 16세기에 인도네시아 어느 섬에서 번성하며 살았다고 전한다. 그런데 문제는 섬에 상륙한 탐험가들이었다. 도도새들에게 탐험가들은 낯설었을 테지만 쉽게 다가갔고 했다. 도도새는 그렇게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던 거다. 배고픈 탐험가들에겐 이보다 더 쉬운

먹이감은 없었던 바. 도도라는 말은 멍청하다는 뜻이란다. 한국어의 도도함과 사뭇 다른 때문인가 아니면 이름 덕분인가. 도도새는 인간들의 사냥감으로 이젠 멸종되었다고 들었다. 순진하게 인간을 따르다가 지구 상에서 사라졌다는 거다.

도도새는 한국소설에서도 등장한다. 조세희의 '난쏘공' 에서이다. 소설뿐이라. 천양희의 시에도 도도새는 운다. 소멸된 도도새 조상을 향한 애도곡이다.

이른 새벽도도새가 울고 바람

에 가지들이 휘어진다새가 울었을 뿐인데 숲이 다 흔들 한다 (천양희, 새는 너를 눈뜨게 하고 중에서)

도도새는 날개는 있으되 퇴화했다. 적에게 공격을 당해 몸을 피할 필요가 없었고, 먹이를 위해 날을 필요도 없었던 거다. 날지 않아도 편히 먹고 살수 있으니 구태여 날을 필요가 없었을 터. 사용하지 않는 날개는 퇴화하기 마련이다.

새가 날아야 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살기위해 날으는 거다. 유희삼아 날으는 건 아닐 테니 삶과 번식을 위해 날은다 해야할 터. 그런데, 도도새는 예외되었다. 하긴 닭도 그러하다.

강한자가 살아남는게 아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살아남아 강한자가 되기 위해선 끊임없이 자라야 한다. 지금에 안주하지 말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28)



JUNE 27th
- JULY 10th,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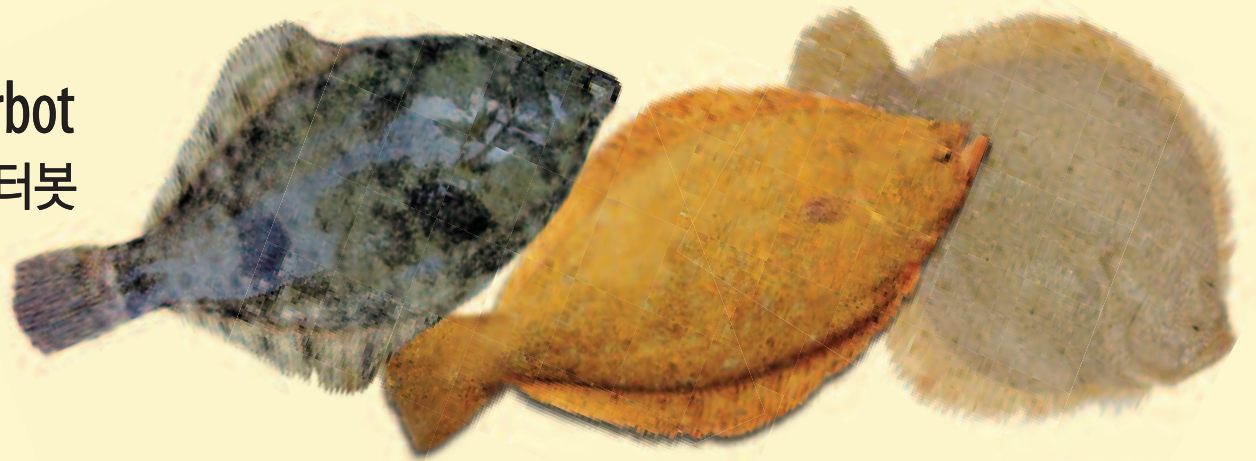
Hello, Jeju

Welcome to special savings from Korea's most cherished island!

청정 제주가 품은 다채로운 맛, 지금 특가로 만나보세요! **BURLINGTON & QUINCY STORES ONLY**

Live Jeju Flounder/
Starry Flounder/Jeju Turbot
제주 활광어/활도다리/활터봇

\$19.99 LB



JEJUNFARM
Hallabong/
Green Mandarin Tea
제주안팜
한라봉차/청귤차

\$5.99 1.25 LB



ONLY JEJU
Black Sesame Five Nuts
Omegi Rice Cake
시루에 담은 꿈
흑임자 오복 오메기떡

\$7.99 31.16 OZ



JEJUWELLING
Sea Urchin
Abalone Seaweed Soup
제주웰링
성게전복 미역국

\$6.99 14.1 OZ



BADAEORANG
Yellow Croaker
바다어랑 참조기

\$12.99 12.6 OZ



Jeju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분 안에 틀린 그림 못 찾으면 치매 위험" ... 정말?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누구나 두려워하는 질환인 "치매"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신경과 윤 영철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걸리면 '자아'가 사라지는 '치매'는 누구나 두려워하는 질환이다. SNS에는 이런 무의식적 두려움을 활용한 콘텐츠가 넘쳐난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틀린 그림 찾기' 게시물이다. 이런 흥미용 게시물을 접하면 한 번쯤 보게 되는데, 괜히 다른 그림을 못 찾으면 치매일 것으로 믿지 않더라도 찻찻하기 마련이다. 틀린 그림 찾기는 정말 치매 초기 증상과 관련이 있을까?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틀린 그림 찾기'는 공간 인지능력, 주의력, 집중력과 관련이 있어, 이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 초기 증상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틀린 그림 찾기로 치매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치매면 틀린 그림 찾기를 잘 못할 수 있지만, 틀린 그림 찾기를 못한다고 치매로 볼 순 없다. 틀린 그림 찾기가 치매를 판단하기에는 매우 단순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신경과

윤영철 교수는 "치매 진단은 표준화된 신경심리학적 검사, 의료 이력, 신체검사, 뇌영상, 생체표지자 검사 등 종합적인 평가로 이뤄져야 한다"며 "틀린 그림 찾기와 유사한 시각 구성 과제에서도 수행 능력을 평가할 때 연령, 교육 수준, 시력, 집중력, 피로도 등 개인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일시적으로 집중력이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SNS 틀린 그림 찾기는 이조차 반영할 수 없다.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치매를 의심해야 한다. 치매는 여러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때 주변 사람들이 그 변화를 먼저 알아챈다. 스스로 건망증이 심하다는 게 느껴지고, 주변 사람도 이상함을 지적한다면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가천대 길병원 박기형 교수는 "초기에는 집중력 저하와 함께 기억력이 떨어지고, 평소 알던 길도 잘 못 찾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했다. 한편, 틀린 그림 찾기가 치매 예방에는 도움이 될까? 강성훈 교수는 "틀린 그림 찾기 외에도 스도쿠나 오솔 하루 뭘 했는지 떠올려보거나 사람들과 대화하는 등 모든 인지 훈련이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이런 활동이 뇌를 활성화해, 뇌를 더 두껍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다. 윤영철 교수는 "정기적인 운동이 인지

가능 저하 위험을 줄이는 데 가장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다"며 "이 외에도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먹고, 양질의 수면을 취하고, 심혈관 질환 관리를 하면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치매 자가 진단법>
1. 오늘이 몇 월이고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른다
2. 자기가 뇌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3.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4. 약속하고서 잊어버린다.
5.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온다.
6.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 머뭇거린다.
7. 대화 중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반복해서 물어본다.
8.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9. 예전보다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10. 성격이 변했다.
11. 이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12. 예전보다 방이나 주변 정리정돈을 하지 못한다.
13.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하여 입지

못한다.
14. 혼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가기 힘들다.
15.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 (출처: 한국판 치매 선별 질문지; KDSQ-C)
* 15가지 항목 중 6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정확한 치매 진단 및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분 안에 틀린 그림 못 찾으면 치매 위험... 정말?"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보스톤코리아 창간 20주년 기념, 온라인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

3차 집중 프로그램 접수중

기간: 8월 4일부터 8월 22일까지

접수 마감: 7월 21일까지

일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교육 내용: 매일 지정된 글 독해
주제별 기사 및 에세이 작성
전문 코치의 이중 피드백
주 1회 라이브 온라인 미팅을 통한 수정 지도



좋은 글쓰기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좋은 읽기 및 글쓰기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이들의 English 읽기, 글쓰기 실력이 걱정되세요?

미국 대학 입시의 성패는 결국은 글쓰기로 좌우됩니다. 대학들은 커먼 에세이, 주제별 글쓰기, 긴 글쓰기부터 짧은 글쓰기까지 모든 것을 원합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짧은 글쓰기로 주제에 따라 정확한 답변을 명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쓰기 훈련이 제대로 안 된 학생들은 대학입시를 앞둔 11, 12학년 때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그 이후 커리어에서도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글쓰기를 어떻게 배우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3주간 아이의 글쓰기 실력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보스톤코리아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영어 작문 전문 교육기관인 Letterly와 손잡고 온라인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를 개최합니다. 영어 글쓰기 교육기관인 Letterly는 Robinhood, Epipelagic Ventures 등의 벤처 투자를 받은 전도양양한 영어교육 스타트업입니다. 글쓰기 교사들은 모두 하버드와 유펜 등 명문대 출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프로그램 특징

기간: 3주간 집중 프로그램 (6, 7, 8월 3차례)
6월 9일 - 27일, 7월 7일 - 25일, 8월 4일 - 22일
수업 방식: 온라인 1:1 맞춤형 지도
일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교육 내용:
매일 지정된 글 독해
주제별 기사 및 에세이 작성
전문 코치의 이중 피드백
주 1회 라이브 온라인 미팅을 통한 수정 지도

특별 혜택

-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한 학생 개인별 성장 과정 모니터링
- 전문가의 체계적인 피드백을 통한 글쓰기 실력 향상
- 완성된 글은 Letterly 온라인 매거진과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 게재
- 우수작품 선정 보스톤코리아 장학금 및 작품 게재

기대효과

- 논리적 사고력 강화
- 명확한 문장 구사력 향상
- 전문적인 글쓰기 편집 기술 습득
- 실제 출판 경험을 통한 자신감 향상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내과전문의 이용현

현재 매사추세츠 프레밍햄에 위치한 Charles River Medical Associates(CRMA)에서 내과 및 비만 클리닉을 운영

병원비 1억 원? 이메일 한 통으로 7천만 원 깎은 리얼 후기 공개!

안녕하세요, 미국 내과·비만 전문의 이용현입니다.

미국에서 병원 진료를 받은 뒤, 몇 천만 원대 청구서를 받고도 그냥 내야 하는 줄 아셨던 분들 계시죠?

오늘은 제가 직접 도와드려 실제로 병원비 7천만 원을 절감한 구독자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2024년 2월, 한 구독자분이 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남기셨어요.

캘리포니아 여행 중 병원을 이용하고 \$74,000(한화 약 1억 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으셨다고요.

다행히도, 이전에 제가 올린 "미국 병원비 협상 5단계"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병원 billing department에 연락해 itemized bill을 확보해두신 상태였습니다.

itemized bill은 진료 항목과 금액이 각각 나열된 세부 청구서입니다.

잘못 청구되었거나 과도한 비용이 포함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꼭 필요합니

다. 이후 저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도와드렸습니다:

☑ 병원 웹사이트에서 'price transparency' 자료 검색하기

☑ 동일 서비스의 일반 요금 vs. self-pay 할인 요금 비교

☑ 할인 적용이 누락된 항목에 대해 증빙 자료를 첨부해 이메일 보내기

이 모든 과정을 따라 주신 결과, \$74,000 → \$22,000으로 병원비가 조정되었고,

무려 \$52,000(한화 약 7천만 원)을 절감 하셨습니다!

사실 더 깎을 수도 있었어요.

✓ 설명 없이 청구된 고가 검사

✓ 실제보다 길게 기록된 진료 시간

✓ 받지 않은 신체검사 등

이런 항목은 의사의 진료 노트를 통해 확인하고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이후 미국에서는 모든 진료 기록이 환자에게 열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병원비는 '그냥 내는 돈'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따져보고, 협상하면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양한 의료비 절감 팁과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는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정리되어 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

<https://youtube.com/shorts/rGQksnm-cf4>

병원비 협상의 5단계가 궁금하시다면, 지난 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https://bostonkorea.com/news.php?code=cc&mode=view&num=40218&page=1&wr=>

고액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열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수천만 원의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